

(02) 독도의 숨겨진 자원

저온·고압인 심해저에서 가스와 물이 결합해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다. 외관이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하며, 불을 붙이면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린다.



메탄하이드레이트



(02) 독도의 숨겨진 자원

고체 상태인 가스 하이드레이트 1m³ 안에는 약 170m³의 가스가 포함되어 있다. 즉,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기체가 높은 압력을 받아 고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기체로 돌아가면 그 양이 약 150~200배로 늘어난다.

메탄하이드레이트



(02) 독도의 숨겨진 자원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노르웨이, 시베리아, 알래스카, 인도 등의 심해에 약 10조 톤 이상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를 중심으로 동해에 약 6억 톤가량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탄하이드레이트



(02) 독도의 숨겨진 자원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고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사용 시 발생하는 공해가 적어 차세대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메탄하이드레이트



(02) 독도의 숨겨진 자원

고체 상태인 가스 하이드레이트 1m³ 안에는 약 170m³의 가스가 포함되어 있다. 즉,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기체가 높은 압력을 받아 고체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기체로 돌아가면 그 양이 약 150~200배로 늘어난다.



메탄하이드레이트



(02) 독도의 숨겨진 자원

★ 메탄하이드레이트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03)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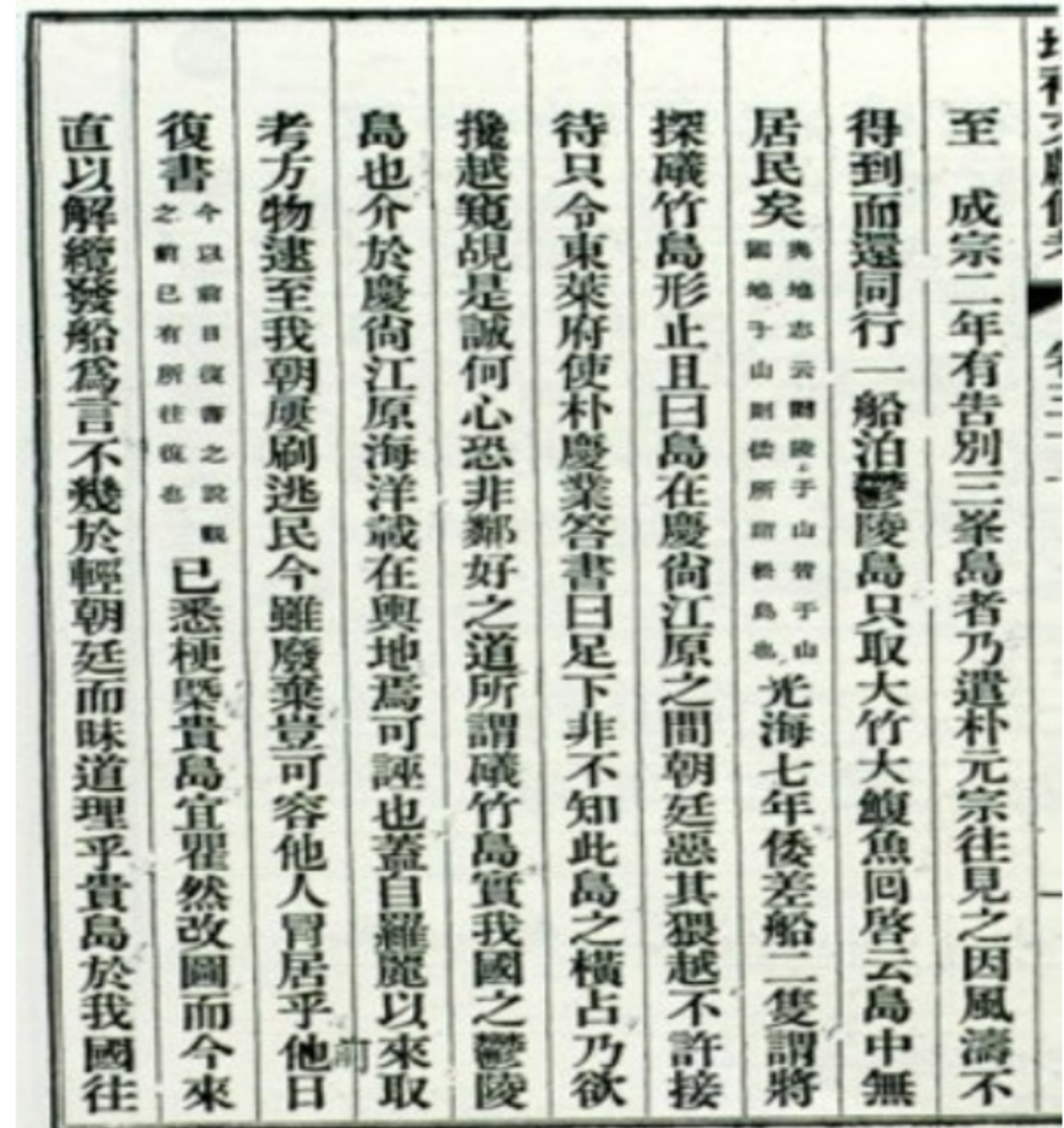
독도를 둘러싼 한국의 입장

우산국 복속

신라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합니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동국문헌비고』 (1770년)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
의
땅”이라고 기술했습니다



[그림 3]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동국문헌비고
동해(東海) 울진(蔚珍)』)

(03)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입장

독도를 둘러싼 한국의 입장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03)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입장

독도를 둘러싼 한국의 입장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03)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입장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

일본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들은 제국주의 시기 국토 편입에도 법적 정당성이 있고 독도 편입과 조선 합병 사이에 관련이 없다고 본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바는 한일병합이 이루어지기 전, 그리고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되기 이전에 독도는 한국이 통치한 적 없는 무주지였다는 주장이다